2020

방 위 백 서

일본의 방위
다 이 제 스 트

제 Ⅰ 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제 1 장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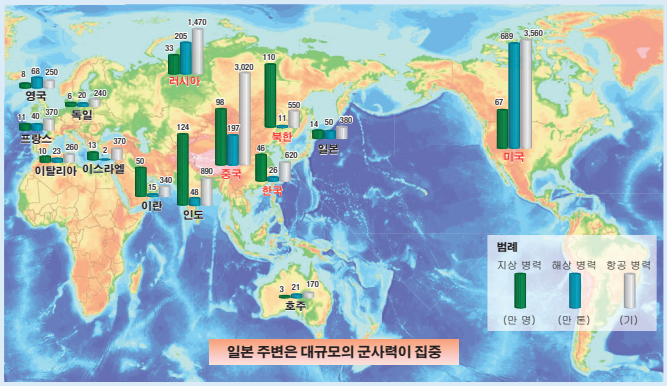
현재 안전보장환경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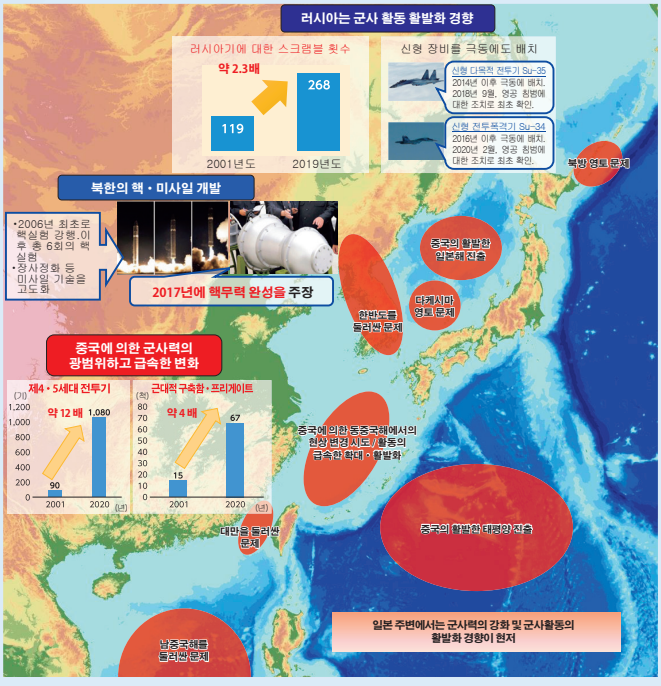
- 기존의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치・경제・군사에 걸쳐 국가 간 경쟁이 가시화.
  - '하이브리드전'에 따른 복잡한 대응 발생.
  - 그레이존 사태의 장기화.
-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안전 보장에 큰 영향.
  -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중요성.
  - 전투 양상을 일변시키는 게임 체인저 기술(인공지능 기술, 극초음속 기술, 고출력에너지 기술 등).
- 한 나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안전보장상의 과제가 가시화.
  - 우주 및 사이버 등 신영역의 안정적 이용 확보, 해상 교통의 안전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 국제 테러에 대한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국의 군사 활동 등에도 다방면에서 영향 및 제약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 일본 주변에는 질적, 양적으로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집중.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 활동을 활발화시키는 경향이 현저함.
-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충분한 지역협력의 틀이 없음. 영토 문제와 통일 문제 등 종래의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
- 최근 영토와 주권, 경제권익을 둘러싸고 그레이존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시에, 명확한 징후 없이 더욱 중대한 사태로 급속히 발전해 나갈 리스크가 내포.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등





제2장 미국

전반적 상황

- 안전보장상의 최우선 과제는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인식. 특히 중국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고 중국에 대한 억제 강화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가장 중시.
  - 전략 문서에서 '불량 국가'로 평가되는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 하에서 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등을 이용해 확고한 국사적 즉응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
-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유럽 지역에 전력을 우선 배치하고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등의 전력을 감축할 방침. 그러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대처하고 있고 전력 태세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
- 부담이 적다고 지적되어 있는 일부 동맹국이 응분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NATO 가맹국들에게 국방비 목표의 조기 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 한국측에 더 많은 부담을 공유할 것을 요구.
  - 이란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코즈부대 사령관 등을 이라크에서 살해. 이에 대해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 중동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미군은 중동에 대한 방위 태세를 강화. 또한 영국 등과 함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설립하고 함정 등을 이용한 활동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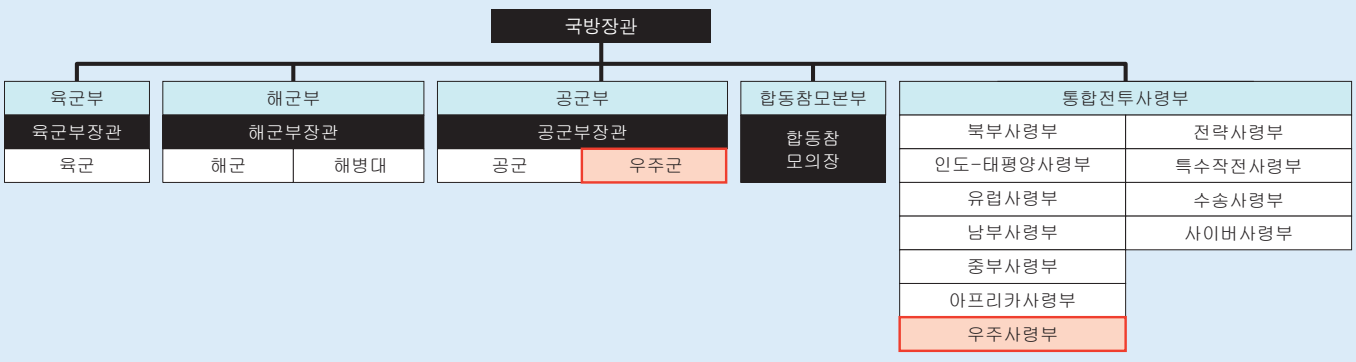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공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방부】

안전보장・국방정책을 둘러싼 동향

- 핵전력은 2018년 2월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의거해, 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SLBM)의 일부 탄두를 저출력화해 배치. 또한 INF(중거리핵전력) 전폐조약으로 제한되었던 지상발사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실시. 더불어 INF 전폐조약의 틀 밖에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온 중국을 포함한 군비 관리 필요성을 언급.
- 통합군(Unified Combatant Command)으로 우주 사령부(Space Command)를 창설하고 6번째 군으로 공군부 내에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 (새로운 군의 창설은 공군 창설 이래 약 70년만임).

우주군의 로고 마크 공표【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의 주요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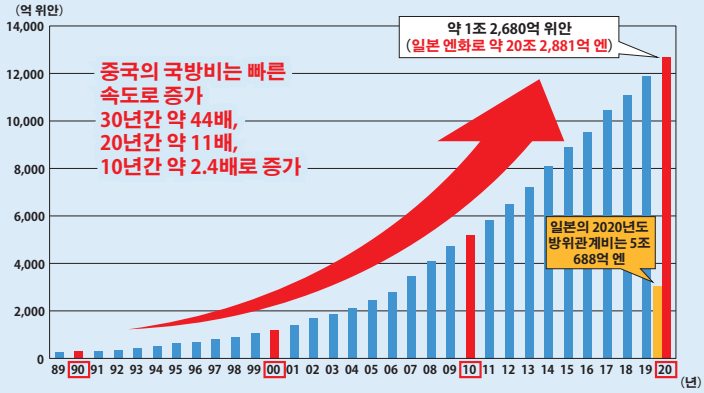


제2장 중국

급속한 군의 현대화

- 21세기 중엽까지 중국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투명성이 없는 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 핵·미사일 전력 및 해상·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질·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 이 때 정보 우위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작전 수행 능력 강화도 중시해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 관한 능력도 강화.
- 이러한 능력의 강화는 'A2/AD(반접근·지역거부)' 능력 및 보다 먼 곳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구축으로 이어짐.
- 다양한 분야에서 군대자원과 민간자원의 양방향 결합을 지향하는 군민융합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군사 이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획득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 세계의 군사 동향에 대해 '인텔리젠트화(지능화) 전쟁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군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등을 모색.

중국의 공표 국방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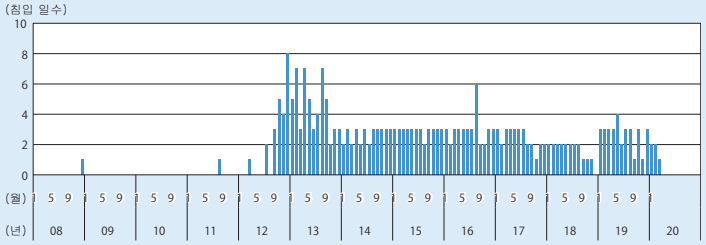


중국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 '산둥(山東)'의 취역 (2019년 12월)
【Avalon/시사통신 포토】

일본 주변 해공역 등에서의 활동

-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
- 중국 해상·항공 전력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활동을 확대·활발화. 행동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사안도 있음.
- 이른바 제1열도선을 넘어 제2열도선을 포함한 해역으로의 전력투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비롯해, 보다 먼 해공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 태평양, 일본해 등으로의 진출에 따른 해상·항공전력의 훈련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계속 중. 중국은 이러한 활동의 상태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중국해에서는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해공역에서의 활동도 확대·활발화시켜, 힘을 배경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의 기정사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영해 침입 일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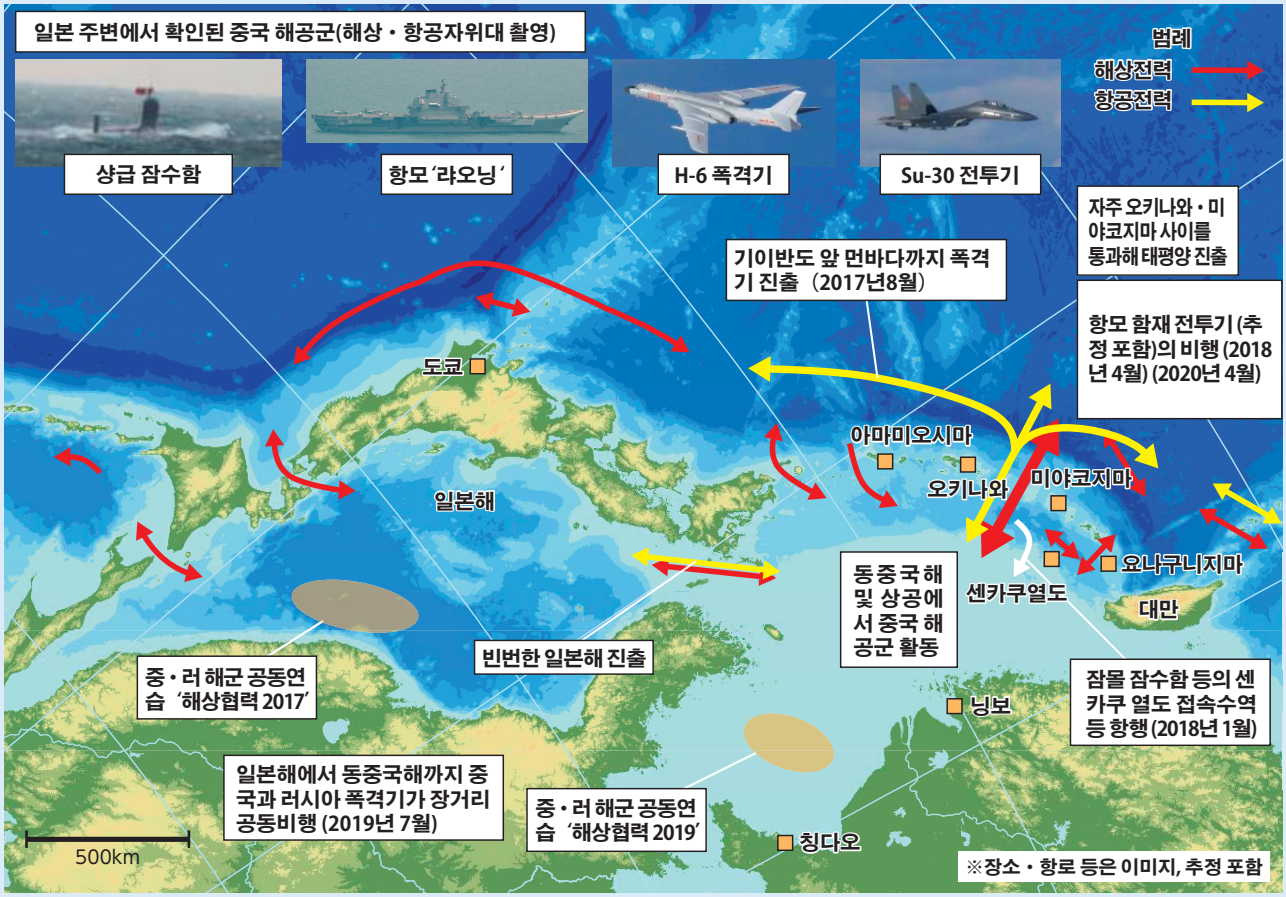


접속 수역에서의 확인 상황

년	확인 일수(일)	총 확인 선박 수 (척)
2012	79	407
2013	232	819
2014	243	729
2015	240	709
2016	211	752
2017	171	696
2018	158	607
2019	282	1,097
2020	83	289

※ 2012년은 9월 이후, 2020년은 3월말 기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주요 활동 (이미지)



보다 먼 해역 등에서의 활동

- 최근 인도양 등 보다 먼 해역에서 작전수행능력을 착실히 향상.
-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을 추진. 인도양 각국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은 군사 이용도 가능한 거점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군이 해적 대처활동에 따른 지역의 안정화와 공동훈련을 통해 연안국의 테러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구상의 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외국 등과의 관계

-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양한 현안(무역, 남중국해, 대만, 홍콩, 위구르・티베트를 둘러싼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이 존재.
-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상대하는 가운데, 중국도 자국의 '핵심적 이익' 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 미중 양국은 무역・군사 등에 있어서 상호 견제하는 상태.
-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여를 계속・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 독립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
-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총통 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재선. 중국측은 '1국 2체제'를 또다시 거부하는 차이잉원 총통을 견제.
- 솔로몬 제도 및 키리바시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 대만의 수교국은 2016년 5월 차이잉원 정권 발족 당시의 22개국에서 15개국으로 감소.
- 중국・대만의 군사 균형은 전체적으로 중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해마다 확대하는 경향.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무기 매각 등을 계속함(F-16전투기 등).
- '일대일로' 구상의 협력국에서의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 재검토 움직임.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미국재대만협회의 크리스텐슨 대표【AIT】

제2장 북한

전반적 상황

-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추진 및 운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왔음. 이러한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이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종료됨.
-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철회할 때까지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표명.

노동 미사일【조선통신=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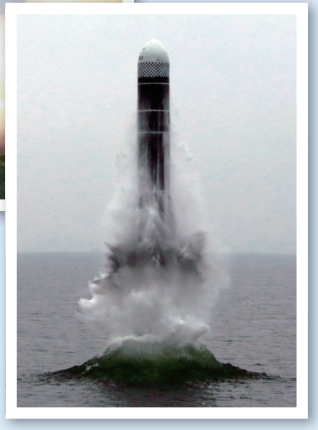
핵 개발 현황

-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 지난 6 차례의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하면 이미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탄두화가 실현 단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미사일 개발 현황

- 2016년부터 7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강행. 그 특징은, ①장사정화, ②포화공격을 위해, 필요한 정확성, 연속 발사 능력 및 운용 능력 향상, ③기습적 공격 능력 향상, ④저고도를 변칙적인 궤도로 비상, ⑤발사 형태의 다양화.
- 특히, 최근 미사일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해 왔으며, 2019년 5월 이후 3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통상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에서 비상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미사일 방위망 돌파를 기도. 고도화된 기술이 더욱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에 응용될 우려가 있음.
- 북한은 공격 형태의 복잡화・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해 공격 능력의 강화・향상을 착실히 도모하고 있고, 발사 징후의 조기 파악과 요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의 정보 수집・경계, 요격 태세 등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 시(2019년 7월) 북한이 공표한 사진【JANES】


'북극성3' 형 SLBM 발사 시(2019년 10월)에 북한이 공표한 사진【JANES】

환적 등의 현상

- '환적'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회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9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규정을 크게 넘는 양의 석유제품을 불법 수입하였다는 지적 등.

제2장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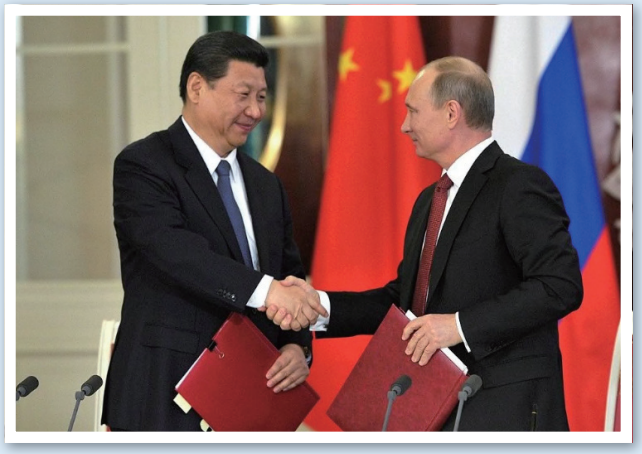
전반적 상황

- 러시아는 핵전력을 포함한 장비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활동을 활발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전력의 경우에도 제5세대 전투기와 대형 공격용 무인기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전자파 등 신영역에서의 활동을 활발화.

남아프리카를 처음 방문한 전략폭격기 TU-160. 앞쪽은 코빌라슈 러시아 원거리항공부대 사령관(우)과 마피누카쿠라 남아프리카 국방 및 퇴역군인장관【러시아 국방부】

중국과의 연계 강화 움직임

- 2019년 7월 러시아의 Tu-95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중국의 H-6 폭격기 2대와 함께 일본해에서 동중국해까지 공동 초계비행을 실시.
- 같은 해 9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장여우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일련의 문서에 서명.
- 양국 당국은 모두 군사 동맹 관계를 명확히 부정하고 있으나 최근 양국의 연계 강화를 고려하면서 향후 연대 관계의 진전에 주목.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2019년 6월)【러시아 대통령부】

북방영토 및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

-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에 러시아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며 최근 그 활동이 보다 활발화.
- 2019년 6월에 Tu-95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일본을 주회비행하는 동시에 태평양 북상 시 2회에 걸쳐 영공 침범. 7월에는 조기경계기 A-50이 다케시마 상공을 영공 침범. 2020년 2월에는 Su-34 전투폭격기의 극동 배치를 최초 확인.

Su-34 전투폭격기

- 2019년 10월, 동부군관구의 사할린주 및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 지방에서 최대 8,000명의 인원, 3,000개 이상의 장비, 최대 50대의 전투기 및 헬기가 참가해 가상 적국의 상륙을 저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발표.
- 군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

제2장 그 외의 지역 (중동·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반적 상황

- 중동지역은 전 세계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제통상에 이용되는 주요 항로가 있으며, 일본도 원유 수입량의 약 90%를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20세기 내내 분쟁과 폭동이 끊임없이 발생, 최근에도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과 중동 평화를 둘러싼 정세 등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초에 시작된 이른바 '아랍의 봄'을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내전과 테러조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을 둘러싼 정세

- 2019년 5월 이후 이란은 미국의 제재 재개에 반발해 핵합의(JCPOA) 의무이행 정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분쟁 해결 절차에 의거해 JCPOA 합동위원회에 위탁하자 이란은 NPT 탈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동시에 유럽이 합의를 이행한다면 합의 준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명.
- 2019년 5월 이후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으로 미군 전개 병력을 확대. 같은 해 10월 이후 이라크에서 미군 주둔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이 다수 발생했으며, 미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응수로 발전. 한편 미국·이란 양측 모두 더 이상 대립 확대를 회피하고 싶다는 의향을 명확히 나타냄.
- 2019년 5월 이후 중동 해역에서 민간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산발적으로 발생. 미국, 유럽 여러 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중동지역에서의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추진.
  - 미국은 해양안전보장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이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를 설립. 미국과 더불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를 포함한 7개국이 참가.
  - 유럽에서는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8개국이 함께 유럽 호르무즈 해협 호위작전(EMASOH) 창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 이란도 해양 안전을 유지하는 독자적 대응으로 '호르무즈 평화계획(HOPE)'으로 불리는 구상을 제창. 또한 오만만 등에서 중국 및 러시아 해군과 사상 첫 3개국 합동군사훈련인 '해양안전벨트'를 실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주둔 기지의 피해 상황【AFP/시사】

2019년 6월에 오만만에서 공격을 받아 불타고 있는 유조선【EPA/시사】

제3장 새로운 영역을 둘러싼 동향과 국제 사회의 과제

군사과학기술

- 민생 분야의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기술 혁신에 따라 미래의 전투 양상은 크게 변화.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의 향상 등과 더불어 자립형 무인기, 사이버 영역에서의 활용 등 큰 영향이 지적됨.
- 중국 및 러시아가 개발 중인 선진적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미국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
- 전자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 고출력 에너지 무기는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

유인기와 자율형 무인기의 협조 비행【러시아 국방부】

우주 영역

- 주요국은 C4ISR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종 위성 능력 향상 및 발사를 실시.
- 각국은 우주공간에서, 우주 공간을 이용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이용을 추진. 또한 중국 및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우주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
-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군의 우주 관련 조직의 재편을 추진.

2019년 12월에 중국이 발사 성공한 '창정(長征)5호'【Avalon/시사통신 포토】

사이버 영역

- 군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의존도가 더욱 증대하는 가운데 많은 외국 군대는 사이버 공격을 적의 군사활동을 저비용으로 방해할 수 있는 비대칭적 공격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을 개발.
- 중국 및 러시아는 타국의 네트워크화된 부대의 방해 및 인프라의 파괴를 위해 군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
- 해외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 및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학술 기관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다수 발생. 중요 기술, 기밀 정보, 개인 정보 등이 표적이 되는 사례도 있음.

전자파 영역

- 전자파 이용의 확보는 통신・레이더 장비 등의 운용을 위해 필수적. 주요국은 전자파 이용 방해(전자공격)를 적의 전력 발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비대칭적인 공격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능력을 향상.
- 중국은 복잡한 전자파 환경 하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항 연습 방식으로 평소부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전적인 능력을 향상.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및 시리아에서 복수의 전자전 장비품을 사용해 상대의 지휘 통제, 레이더를 방해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지적.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이란 무인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진 'LMADIS'【미국 해병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초래한 과제는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드러나는 등 각국의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의 정체 장기화가 우려됨.
- 각국은 군의 위생 기능과 운송력 등도 활용해 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힘쓰는 동시에 국제적인 감염 확산 방지에도 공헌. 한편 부득이하게 훈련과 공동훈련을 중지・연기하는 등, 각국의 군사 활동 등에도 여러 가지 영향과 제약. 감염 확산이 더욱 장기화되는 경우, 각국의 군사 태세에도 여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등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의료 전문가 파견과 의료 물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 불안과 혼란을 계기로 한 거짓 정보 유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전 공작 등도 지적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 및 지역 질서의 형성과 영향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을 더욱 현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음.

감염 확산으로 인해 폐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수산시장【AFP=시사】

제Ⅱ부

일본의 안전보장 · 방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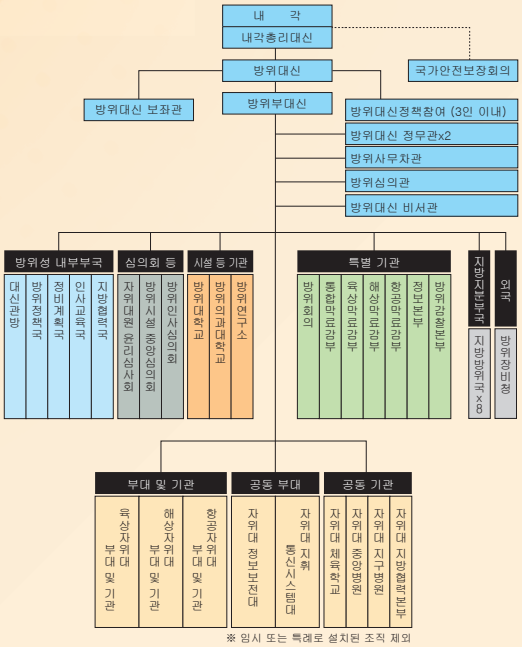
제2장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를 담당하는 조직

방위성 · 자위대의 조직

방위성 ·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력 조직인 육 · 해 · 공 자위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이미지) (2019년도말)

방위성·자위대의 조직도



※ 임시 또는 특례로 설치된 조직 제외

제3장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에 관한 정책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년 12월에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의 견지와 국제협조주의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 및 연도예산의 관계

국가안전보장전략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의 기본방침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둠)
↓ 전략에 입각해 책정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과 보유해야 하는 방위력 수준을 규정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둠)
↓ 제시된 방위력의 목표수준을 달성	
중기방위력정비계획	5년 간의 경비 총액 (의 한도) 과 주요장비의 정비 수량을 명시
↓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으로 구체화	
연도예산	정세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각 연도마다 필요경비를 계상

방위계획대강

- 2018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국무회의)에서 결정.
- 일본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과 보유해야 할 방위력 수준에 대해 규정 (대략 10년정도).

방위계획대강의 변천

	【배경】	'1976 방위대강'의 기본적 개념
1976 방위계획대강 (1976년10월29일, 국방회의·각의 결정)	○동서 냉전은 계속되지만 국제 정세는 긴장 완화 ○일본 주변은 미국·중국·소련의 균형이 성립 ○국민에게 방위력의 목표를 알려야 할 필요성	·'기반적 방위력 구상'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항한다기보다, 일본이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반적 방위력을 보유
↓ 19년		
1995 방위계획대강 (1995년11월28일, 안보회의·각의 결정)	【배경】 ○동서 냉전의 종결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국제 정세 ○국제 공헌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 고조	'1995 방위대강'의 기본적 개념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기본적으로 답습 ·방위력의 역할로서 '일본의 방위'와 더불어,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 및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환경 구축에 대한 공헌'을 추가
↓ 9년		
2004 방위계획대강 (2004년12월10일, 안보회의·각의 결정)	【배경】 ○국제 테러 및 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 ○세계의 평화가 일본의 평화와 직결되는 상황 ○억제 중시에서 대처 중시로 변환할 필요성	'2004 방위대강'의 기본적 개념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탄력적인 실효성이 있을 것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유효 부분은 승계
↓ 6년		
2010 방위계획대강 (2010년12월17일, 안보회의·각의 결정)	【배경】 ○세계적인 힘의 균형 변화 ○더욱 복잡해지는 일본 주변의 군사 정세 ○국제사회에서 군사력 역할의 다양화	'2010 방위대강'의 기본적 개념 ·'동적방위력'의 구축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따르지 않음) ·각종 사태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와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 및 세계적 안번보장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위력
↓ 3년		
2013 방위계획대강 (2013년12월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각의 결정)	【배경】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긴박함이 더욱 증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리밸런스(재균형) ○동일본대지진 시 자위대 활동에서 얻은 교훈	'2013 방위대강'의 기본적 개념 ·'통합기동방위력'의 구축 ·긴박함이 증가하는 안전보장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해상우세·항공우세의 확보 등 사태에는 빈틈없이 상황에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운용의 개념을 보다 철저히 한 방위력
↓ 5년		
2018 방위계획대강 (2018년12월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각의 결정)	【배경】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현격히 빠른 속도로 긴박함과 불확실성 증가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 이용의 급속한 확대 ○군사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화 하는 경향이 현저	'2018 방위대강'의 기본적 개념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구축 ·기존 육·해·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을 강화해 모든 영역의 능력을 융합시키는 영역횡단작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실효적인 방위력

일본의 안전보장 · 방위정책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다음과 같이 방위의 목표를 규정한다.

- 평소부터 일본이 보유하는 힘을 종합해 일본에게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
- 일본에 침해를 입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
- 만일 일본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위협에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

전수방위 등의 기본방침 하에서, 방위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수단인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 일미동맹 및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한다.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안전보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우선해야 할 사항을 가능한 한 조기에 강화한다.

- 영역횡단 작전에 필요한 능력의 강화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 해공 영역에서의 능력 및 스탠드 오프(stand off) 방위 능력, 종합 미사일 방위 능력, 기동・전개능력 등 기존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 탄약, 연료 등의 확보, 해상교통로의 확보, 중요 인프라 방호 등에 필요한 조치의 추진 같은 지속성・강인성의 강화.
- 방위력의 중핵적 구성요소 강화
  - 인적기반, 기술기반 및 산업기반의 강화 및 장비 체계의 재검토 등을 통한 방위력의 중심적 구성 요소 강화.

자위대의 체제 등

- 영역횡단 작전의 실현을 위한 통합 운용
  -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부대 신설, 기타 태세 강화, 통합 방공 미사일 능력의 구축, 공동부대로서 해상수송부대를 보유.
- 육상자위대
  -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갖추고,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기본부대, 전문적 기능을 갖춘 부대를 보유하고 평소에도 상시 지속적인 기동 등을 통해 억지력・대처력을 강화.
  - 도서부(島嶼部) 등에 대한 침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대함 유도탄 부대 및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부대를 보유.
- 해상자위대
  - 신형 호위함(FFM)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호위함 부대, 소해 함정 부대 및 함재 회전익 초계기 부대의 보유 및 수상 함정 부대를 편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평소의 경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계함 부대를 신설.
  - 수중에서의 정보 수집・경계 감시 및 주변 해역의 초계 및 방위를 위해 증강된 잠수함 부대를 보유.
  - 해상에서의 정보 수집・경계 감시를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광역적으로 실시하고 주변 해역의 경계 및 방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정익 초계기 부대를 보유.
- 항공자위대
  - 일본 주변 공역의 상시 계속적인 경계 감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경계관제 부대 외에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등 정세가 긴박한 상황 시의 경계 감시 및 관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공경계관제 부대의 보유.
  - 높은 능력의 전투기로 강화된 전투기 부대 및 공중급유・수송부대의 보유.
  - 일본 국토에서 떨어진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및 긴박한 사태 발생 시 공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무인기 부대를 보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의 방위력 정비 방침과 주요 사업 등을 규정.
- 영역횡단 작전이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간 부대를 재검토.
- 신영역・기존 영역에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 인적 기반 강화 등 방위력의 중심적 구성 요소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제4장

2020년도의 방위력 정비·방위관계비

2020년도의 방위력 정비

2020년도는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의거해, 시행 2년차로서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축을 위해 방위력 정비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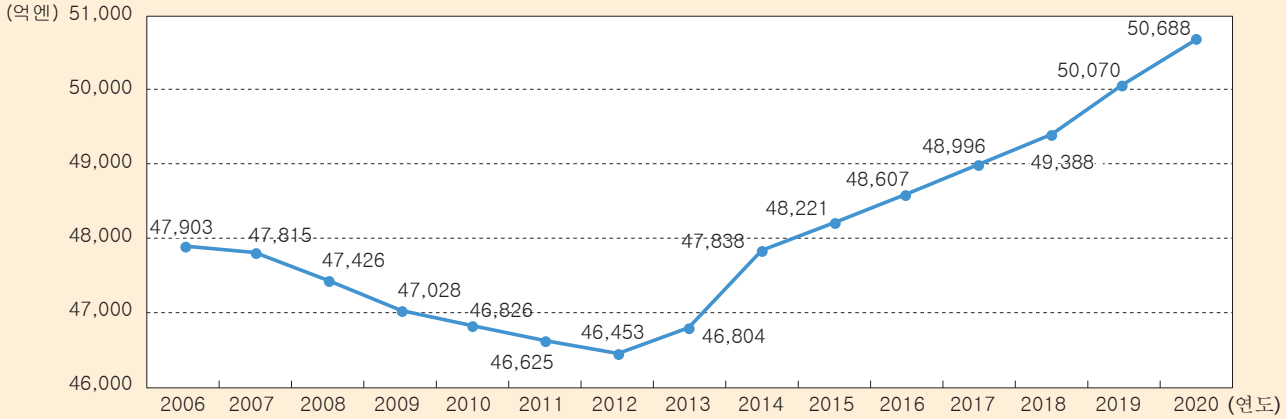
2020년도 방위력 정비 주요 사업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의 우선 사항)

획득·강화해야 할 능력	개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 우주작전대 등의 체제 정비 ○ SSA 위성(우주 설치형 광학망원경)의 정비 ○ SSA(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의 정비 ○ 우주를 이용한 정보 수집 능력 등의 강화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능력	○ 사이버 방위대 등의 체제 강화 ○ 사이버 인재의 확보·육성 ○ 시스템 네트워크의 충실·강화 ○ 사이버에 관한 최신 기술의 활용 등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 스탠드 오프(stand off) 전자전기의 개발 등, 일본을 침공하는 상대방의 레이더 등을 무력화하는 장비의 연구 개발. ○ 전자방호 능력이 뛰어난 F-35A 전투기 및 F-35B 전투기의 취득 등, 일본을 침공하려 시도하는 상대방이 전자파 영역에서 방해 등을 할 때 그 효과를 국한하는 능력의 강화. ○ 전자전부대의 체제 강화 등
해공 영역에서의 능력	○ P-1 초계기의 취득 (3대) ○ 호위함(2척), 잠수함(1척), 소해함(1척) 건조 ○ 공중 급유·수송 부대 1개 비행대의 신설 ○ F-35B 발착이 가능하도록 호위함 '이즈모'의 부분적 개조 ○ 미사와 기지에 F-35A 비행대를 신설 ○ 수중 방위용 소형 UUV(무인 수중잠수정)의 도입 ○ SH-60K 초계 헬리콥터의 취득 (7대) ○ 임시 체공형 무인기 항공대(가칭)의 신설 ○ 일본 주도의 차기 전투기 개발 등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	○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취득 등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 SM-3 Block 2A의 취득 ○ 패트리어트의 능력 향상 개조 등
기동·전개 능력	○ 16식 기동전투차의 취득 (33대) ○ 19식 장륜 자주 155mm유탄포의 취득 (7대) 등
지속성·강인성	○ 20식 5.56mm 소총의 취득 (3,283정) ○ 9mm 권총 SFP9의 취득 (323정) 등

2020년도의 방위관계비

2020년도 방위관계비는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안전보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보다618억엔 증액(전년도 대비1.2% 증가)된 5조688억엔으로, 8년 연속 증가.

과거 15 년간 방위관계비 (당초 예산) 추이



㈜ 위 계수에는 SACO 관계경비, 미군재편경비 중 지역부담경감분 및 새로운 정부전용기 도입에 따른 경비 및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음. 이들을 포함한 방위관계비 총액은 2006년도 48,136억 엔, 2007년도 48,013억 엔, 2008년도 47,796억 엔, 2009년도 47,741억 엔, 2010년도 47,903억 엔, 2011년도 47,752억 엔, 2012년도 47,138억 엔, 2013년도 47,538억 엔, 2014년도 48,848억 엔, 2015년도 49,801억 엔, 2016년도 50,541억 엔, 2017년도 51,251억 엔, 2018년도 51,911억 엔, 2019년도는 52,574억엔, 2020년도는 53,133억엔임.

제Ⅲ부

일본 방위의 3대 기둥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제1장

일본의 독자적 방위 체제

평시부터 그레이 존 사태에 대한 대응

일본 주변을 항시 계속적으로 감시

● 자위대는 각종 사태에 신속하고 끊임없이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영해・영공과 그 주변의 해공역에서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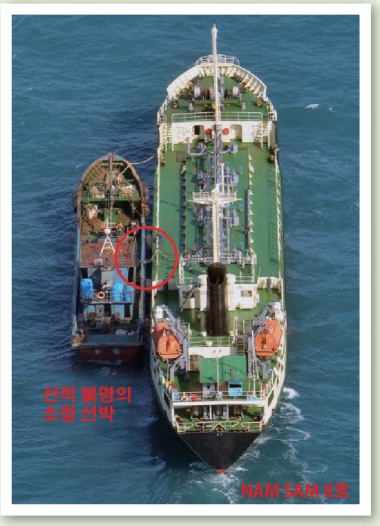
경계 감시를 실시하는 육상자위대원

일본 주변 해역에서 경계 감시 중인 해상자위대 P-3C

24시간, 365일 경계 감시를 하는 항공자위대 레이더 사이트

● 자위대는 일본 주변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이래 2020년 3월말까지 총 24회,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확인하고 공표하고 있다.

● 환적을 포함한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프랑스가 주일미군 가데나 비행장을 사용해 항공기를 이용한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해군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및 프랑스 해군 함정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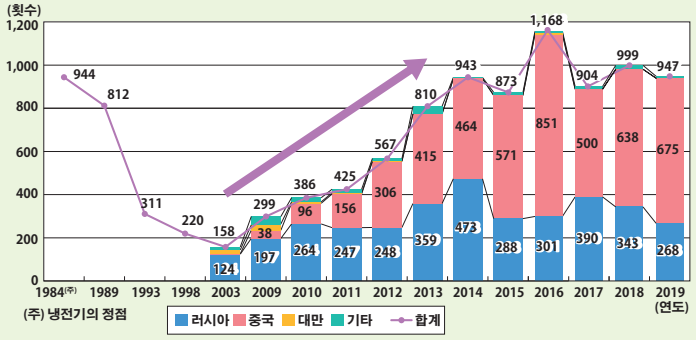
'환적'을 실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선적의 유조선 (2019년 12월)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 항공자위대는 일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경계관제 레이더 및 조기경계관제기 등으로 탐지・식별하고 영공 침범의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발견한 경우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 (스크램블) 시켜 그 항공기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 2019년도 항공자위대 항공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횟수는 947회로 과거 3번째로 많음 (이 중 중국 군용기에 대한 긴급발진은 675회,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긴급발진은 268회).

냉전기 이후 긴급발진 실시 횟수와 그 내역



도서지역을 포함한 일본 공격에 대한 대응

도서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 도서지역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공격에는 필요한 부대를 신속하게 기동・전개시켜 해상 우세・공중 우세를 확보하면서 침공 부대의 접근・상륙을 저지하는 것으로 한다. 해상 우세・공중 우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에도 침공 부대의 위협권 밖에서 그 접근・상륙을 저지한다. 만일 점거된 경우에는 모든 조치를 취해 탈환하는 것으로 한다.
- 남서쪽 섬 지역의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에는 미야코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부대 및 지대함 유도탄 부대를 배치하였다. 향후 이시가키지마에도 초동 대처를 담당하는 경비 부대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 상시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경계항공대를 경계항공단으로 승격시켜 신설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항공자위대에 임시 체공형 무인기 항공대(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 부대의 신속하고 대규모의 수송・전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3월, 오스프리 항공기를 운용하는 수송항공대를 신설하였다.

경계항공단 신설 행사 (2020년 3월)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대처

-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위는 현재 이지스함을 이용한 상층 요격과 패트리엇 PAC-3를 이용한 하층 요격을 자동경계 관제시스템 (JADGE) 으로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다층방위를 기본으로 한다.
- 복잡화・다양화하는 공중 위협에 대해 최적의 수단을 이용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국한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위와 함께 기존의 방공을 위한 장비품도 함께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상시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 전역을 방호하면서 다수의 복합적 공중 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을 강화해 가는 것으로 한다.
-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배치에 관한 프로세스를 정지하고 향후의 대응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

취역한 이지스함 '마야' (2020년 3월)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처

우주 영역에서의 대처

- 2022년도까지 우주 상황 감시(SSA)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인공위성에 대해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와 운용 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본격적인 SSA 의 운용 개시 및 장비품의 도입에 앞서 2020년 5월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였다.

우주작전대 신설 행사
(2020년 5월)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처

- 방위성・자위대는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부대에 의한 사이버 공격 대처 등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 2020년도에 사이버 방위대를 약 70명 증원하여 약 290명으로 확충한다.

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처

- 방위성・자위대는 전자파 이용을 적절히 관리・조정하는 기능의 강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 및 정보 공유 태세 구축, 일본 침공을 시도하는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한다.
- 육상자위대 전자전부대 신설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도에는 전파 방해를 실시하는 스탠드 오프 전자전기의 개발, 고출력 마이크로파와 고출력 레이저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방위성・자위대의 대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위성・자위대는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한 대원 중 감염자는 0명이었다. (2020년 5월 31일 기준)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대응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구호에 필요한 재해 파견, 공항에서의 검역 지원 등 검역 대책 강화에 필요한 재해 파견, 자치단체 직원 등에 대한 감염 방호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자위대 병원과 방위의과대학교 병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수용한 것 외에, '아비간정'의 임상 시험도 개시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위대식' 감염 방지 대책을 공표하는 동시에 국방장관 전화회담 등을 통해 각국과 방위성・자위대로서 감염증 대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얻은 정보・교훈・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크루즈선 승무원의 검체를 채취하는 자위대 의관 (2020년 2월)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처

- 자위대는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협력해 이재민 및 조난 선박・항공기의 수색・구조, 방역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8월 전선으로 인한 호우(규슈 북부 호우), 보소반도 태풍(제15호 태풍), 동일본 태풍(제19호 태풍) 등 449건의 재해 파견을 실시하였다.
- 자위대는 재해 발생 초기에 어떠한 피해나 활동에도 대응 가능한 태세로 대응하고 인명 구조 활동을 최우선으로 실행하면서 생활 지원 등에 대해서는 현지 대책본부 등에서 자치단체・관계부처 등의 관계자와 역할 분담, 대응 방침, 활동 기간 등의 조정을 실시한다.
- 자위대의 지원에 관한 정보에 보다 간단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정보 발신을 강화하였다.

제19호 태풍 발생 시 구조 헬리콥터를 이용해 인명 구조 중인 항공자위대원 (2019년 10월)

중동지역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 독자적 대처의 일환으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상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동시에 소말리아 앞바다 및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기존의 해적 대처 부대를 활용할 것을 각의결정하였다.
- 2020년 1월 11일, 해적 대처 부대의 교대를 위해 해상자위대 고정익 초계기 P-3C(2대)가 출국하였고, 같은 달 20일부터 정보 수집 활동을 개시했다. 또한 호위함 '다카나미'는 같은 해 2월 2일 출항해 같은 달 26일부터 현장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개시하였다. 같은 해 5월 10일에는 '다카나미'와 교대하기 위해 호위함 '기리사메'가 출항하였다.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호위함 '다카나미' 대원 (2020년 2월)

제2장 일미동맹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의의

- 올해 체결 60주년을 맞이한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한 일미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와 함께 일본 안전보장의 기축이다.
- 일미 안전보장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미동맹은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미 안전보장조약' 서명 60주년 기념식전 (2020년 1월)【총리대신 관저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의 개요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은 동맹을 현대에 적합하도록 하며, 또한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억지력 및 대처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동맹과 더 큰 책임의 공유를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미 양국의 정책 협의

- 일미 정상회담
  2019년 9월 25일 뉴욕에서 개최, 일미동맹이 사상 유례없이 강고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확고한 일미동맹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
- 일미 국방장관회담
  2020년 1월 14일, 워싱턴DC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고 또한, 작년 12월에 각의결정한 중동지역으로의 자위대 파견에 대해 설명하였다.
  - 중동지역에서 사태가 보다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
  -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계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할 것.
  -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동시에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
  - 정합하는 양국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일미간에서 긴밀히 연계해 일미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기축이 되어 공동 훈련과 능력 구축 지원의 실시를 포함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
  - 항상적인 항공모함 함재기 착륙 훈련(FCLP)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마게시마의 취득을 포함한 미군 재편 계획의 착실한 진전을 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
  -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이 후텐마 비행장의 계속적인 사용을 회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임.
  - 주일미군의 즉응성 유지를 위해서도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협력할 것.

일미 국방장관회담 (2020년 1월)

일미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 강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은 '우주 영역과 사이버 영역의 협력', '종합 미사일 방공', '공동훈련·연습', '정보 수집·경계감시·정찰(ISR) 활동', '해양안전보장', '후방 지원',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미 공동훈련 (2019년 11월)

일본 방위의 3대 기둥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폭 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확대

● 일미 양국은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의 유지・강화를 포함해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도 감안하면서, '해양 안전보장',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3개국 및 다국간 훈련・연습' 등 일미 공동의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방위 장비・기술 협력', '공동 사용'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에 관한 시책의 착실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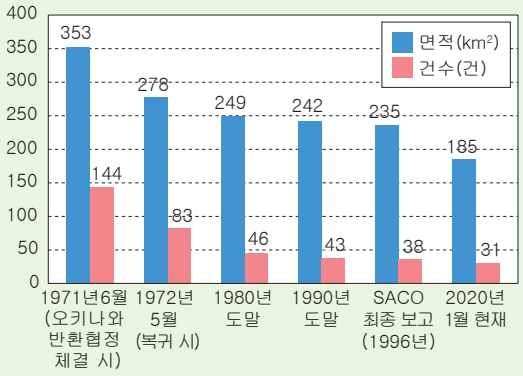
● 주일미군의 영향력은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주일미군의 주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부담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

주일미군 주둔

● 일미동맹이 일본의 방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억지력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일미군의 영향력이 확보되는 것, 그리고 주일미군이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평시부터 일본과 그 주변에서 준비되는 것 등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일본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주둔은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핵심 요소이다.

오키나와 주일미군 시설·구역(전용시설)의 건수 및 면적 추이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주둔

● 일본의 주일미군 시설・구역(전용 시설) 중 면적 기준으로 약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오키나와현 면적의 약 8%, 오키나와 본섬 면적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안전보장상의 관점에 입각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후텐마 비행장이 가진 기능의 분산과 관련해, 긴급 시 항공기를 수용하는 기지 기능을 쓰이키 기지 및 뉴타바루 기지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 정비를 추진.

● 후텐마 비행장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캠프 슈와브 남쪽 해역에서 매립 공사를 실시. 2020년 4월 오키나와 방위국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해 지반 개량 공사의 추가 등에 따른 매립 변경 승인 신청서를 오키나와현에 제출.

훈련을 위해 고쿠부다이 연습장(가가와현)으로 날아온 미국 해병대 MV-22 오스프리 (2019년 12월)

● 주둔군 용지 반환에 관한 주요 진척은 다음과 같다.

2015년 3월: 캠프 즈케란(니시후텐마 주택지구)(약 51헥타르) 반환
2016년 12월: 본토 복귀 후 최대 규모 반환이었던 북부 훈련장 과반 면적의 토지 (약 4,000헥타르) 반환
2017년 7월: 후텐마 비행장의 일부 토지 (시도 기노만 11호선 용지 약 4헥타르) 반환
2018년 3월: 마키미나토 보급지구의 일부 토지 (국도 58호 확폭 용지 약 3헥타르) 반환
2019년 3월: 마키미나토 보급지구의 일부 토지 (제5게이트 부근의 구역 약 2헥타르) 반환
2020년 3월: 캠프 즈케란의 시설기술부 지구의 일부 (약 11헥타르) 반환

오키나와 이외 지역의 주일미군 주둔

● 오키나와 이외 지역에서도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주일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확보하는 시책을 실시. 주일미군 시설・구역 정리 및 주일미군 재편 등을 계속하고 있다.

● 항상적 항공모함 함재기 착륙 훈련 시설에 대해, 2019년 12월 방위성은 마게시마(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테시)의 과반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고 자위대 시설의 정비를 위한 각종 조사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장 안전보장협력

방위성・자위대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추진해 일본에 대해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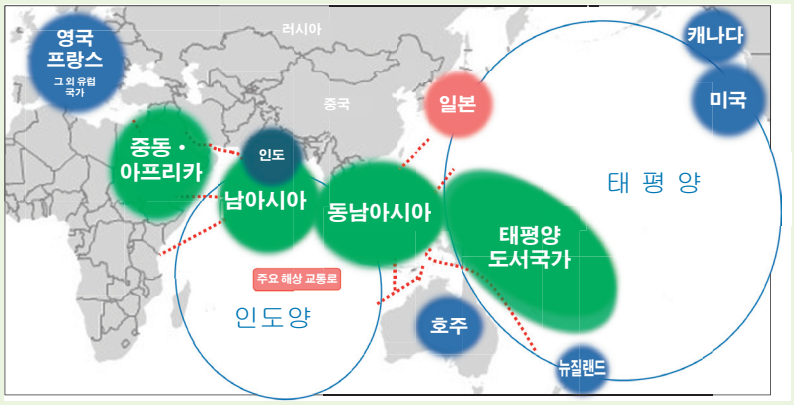
다각적・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서의 활동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 의 3개 기둥
①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자유 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② 경제적 번영의 추구 (연결성 향상 등)
③ 평화와 안정의 확보

방위성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 방향성
첫째, 방위협력 및 교류를 활용해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을 확보
둘째, 신뢰 양성과 상호 이해를 추진,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회피
셋째, 관계 각국과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반수 이상이 살고 있는 세계 활력의 핵심이며, 이 지역을 자유롭고 열린 '국제 공공재'로 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위성・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 각국과의 방위 협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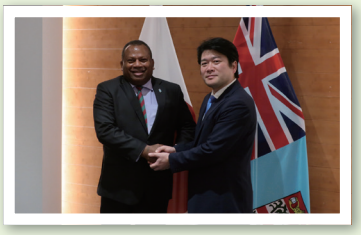


각국과의 방위 협력・교류의 추진

- **호주:** 2019 년 11 월 국방장관회담을 실시. 방위 협력 심화・확대에 대해 확인.
- **인도:** 2019년 9월에 일본・인도 국방장관회담, 같은 해 11월에 일본・인도 국방장관회담 및 일본・인도 '2+2'를 실시, 양국간의 안전보장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코미트먼트(이행 약속)를 표명.
- **ASEAN :** 2019년 11월, 일본・아세안 방위협력 지침 '비엔티안 비전'의 업데이트판인 '비엔티안 비전 2.0'을 일본・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발표, 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실시.
- **한국:**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일한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일본 방위대신은 '동아시아 안전보장환경이 긴박한 가운데, 일미,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중요하고, 이런 상황을 한국측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발표.
- **유럽・캐나다・뉴질랜드:** 2019년 11월의 ADMM 플러스, 2020년 2월의 뮌헨 안전보장회의의 기회를 활용해 각국의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실시. 2019년 10월 육상막료장이 최초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
- **중국:** 2019년 10월 중국 함정이 약 10년만에 일본에 기항. 같은 해 12월, 10년만에 일본 방위대신이 중국을 방문해 일중 국방장관회담을 실시.
- **러시아:** 2019년 8월부터 9월, 육상자위대 음악대가 모스크바 국제군악제에 최초로 참가. 같은 해 11월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18년만에 일본을 방문.
- **태평양 도서국:** 2020년 1월부터 2월, 일본 방위부대신이 피지, 파푸아뉴기니 및 통가를 정무 삼역으로 처음으로 방문.
- **중동:** 2019년 11월의 마나마 대화, 같은 해 12월의 도하 포럼에 일본 방위대신으로 최초 참가, 요르단, 오만에도 최초 방문해 국방장관회담을 실시. 또한 각국과의 전화회담도 실시.

일본・호주 국방장관회담 (2019년 11월)

일본・인도 '2+2' (2019년 11월)


피지 국방・국가안전보장・외교장관과 회담하는 야마모토 방위부대신 (2020년 1월)

일본 방위의 3대 기둥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다자간 안전보장협력의 추진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플러스) 및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체의 노력이 진전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분야에 관한 논의와 협력・교류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아세안 방위협력 지침 '비엔티안 비전 2.0'에 의거해 양자간 협력과 더불어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도 일・아세안 방위당국 차관급회의 및 도쿄 디펜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지역 다자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국제기구 주최의 국제회의, 민간기관 주체의 국제회의 및 각 군종 간에서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아세안 국방장관회담 (2019년 11월)

다자간 포럼 '라이시나 다이얼로그 2020'에 참가한 야마자키 코우지 자위대 통합막료장 (2020년 1월)

능력구축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

- 방위성・자위대의 능력구축지원은 2012년 개시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5개국•1기구에 대해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PKO, 해양안전보장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 능력구축지원의 일환으로 2019년에 실시한 파견은 11개국 20건, 총 126명이며, 초빙은 4개국 1기구 6건, 총 75명이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영국이 개최하는 '로열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에 참가하는 파푸아뉴기니 군악대에 연주 기술을 지도했다. 그 외에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지부티 등에서 사업을 실시하였다.

파푸아뉴기니 군악대를 교육하는 육상자위대원 (2019년 9월)

해양안전보장의 확보

- 해양국가인 일본에 대해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인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기초이며 매우 중요하다.
- 자위대는 2009년부터 수상부대, 항공대 및 지원대를 파견해 소말리아 앞바다 및 아덴만에서 선박을 해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공동훈련 및 기항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연안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안국 등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능력구축지원 활동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등 지역의 안전보장 대화 협의체에서 해양안전보장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앞바다・아덴만에서 해적 대처 행동을 위해 출발하는 해상자위대원 (2019년 11월)

우주 영역 및 사이버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

- 우주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으로 미군이 주최하는 우주상황감시 다자간 가상 훈련 (Global Sentinel) 및 우주 안전보장에 관한 다자간 가상훈련 (Schriever Wargame)에 참가하였다.
- 사이버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방위당국간 사이버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지금까지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 NATO 사이버 방위훈련에 처음으로 정식 참가하였으며, 2019년 8월에는 베트남군에 대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인재 육성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군비 관리・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활동

-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 등의 확산과 무기 및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한 화물 및 민감한 기술의 확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절박한 과제이다. 또한 최근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LAWS)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 방위성・자위대는 2018년 4월부터 비국가 주체의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2004년 4월 채택)에 관한 1540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원 자격으로 직원 1명을 파견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태평양도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를 설명하는 방위연구소 직원 (2019년 9월)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위한 노력

방위성・자위대는 분쟁・테러 등의 근본 원인 해결 등을 위한 개발 협력을 포함한 외교활동과도 연계하면서 국제평화 협력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부대 감시단(MFO)에 파견

- 2019년 4월 시나이반도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에 대한 각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최초로 국제 연계 평화안전활동으로써 MFO에 사령부 요원 2명의 파견을 개시하였다.
- 파견요원은 시나이반도 남부 샤름 엘 셰이크 남부 캠프에 위치한 MFO 사령부에서 이집트・이스라엘 양국과 MFO간의 연락 조정에 종사하는 연락조정부 부부장 및 부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MFO에서 활동하는 육상자위대원 (2020년 4월)

유엔 남수단공화국 임무단(UNMISS)에 파견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정은 남수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므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UNMISS 사령부에 병참, 정보, 시설, 항공 운용의 각 막료 총 4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시설부대의 철수 후에도 UNMISS 활동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다.

UNMISS에서 활동하는 육상자위대원 (2019년 12월)

유엔 삼각 파트너십 프로젝트 (UNTPP) 에 대한 지원

- 본 프로젝트는 일본이 갹출한 자금을 기반으로 유엔 활동 지원국이 중장비 조달과 공병 요원등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이후 아프리카에 총 164명의 육상자위관을 파견해 9회의 훈련을 아프리카 8개국 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PKO 요원의 30% 이상이 아시아에서 파견된 것을 고려해, 2018년 11월 이후 아시아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 PKO에서 위생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9년 10월에는 의료 분야에서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베트남에서 중장비 조작교육을 실시하는 육상자위대원 (2020년 2월)

국제 긴급원조활동을 위한 노력

- 방위성・자위대는 인도적인 공헌과 범세계적 안전보장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국제 협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긴급원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최근, 지부티공화국에서 발생한 호우, 홍수 피해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국제 긴급원조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부티공화국에서 발생한 호우, 홍수 피해에 대한 국제 긴급원조활동에 종사하는 대원 (2019년 11월)

제Ⅳ부

방위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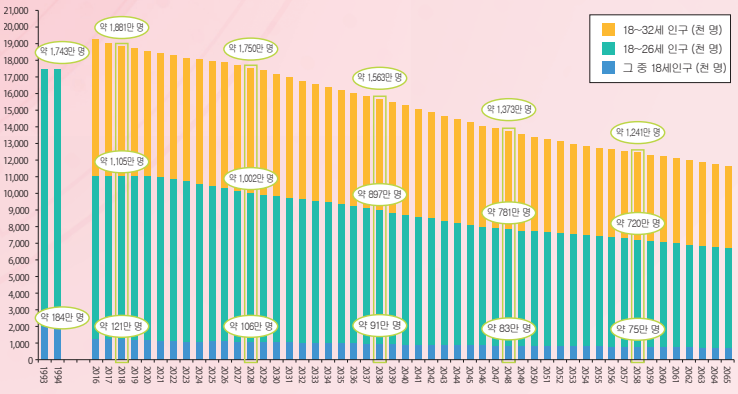
제1장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

인적 기반의 강화

● 방위계획대강에서는 방위력의 중핵은 자위대원이며 자위대원의 인재 확보와 능력 향상·사기 진작은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때문에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방위력의 지속성·강인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의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채용 대상 인구의 추이



자료 출처 : 1993년도 및 1994년도는 총무성 통계국 '일본의 추계인구 (1920년~2000년)' 및 '인구추계 연보'에 따름.
2016년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 (2017년4월의 중위 추계치)에 따름.

인재의 효율적 활용

자위관의 약년정년제 연령을 2020년부터 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기간 중에 1세,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기간 중에 1세, 계급마다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하며, 2020년에 1위(대위 상당)부터 1조(상사 상당)의 정년 연령을 상향하였다. 또한 한정된 인원으로 가동률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상자위대의 일부 함정에서는 복수 크루로 교체 근무해 가동 일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집단 크루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형 함정(FFM)에도 집단 크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향상

즉응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병영생활관·숙소의 확보 및 재건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시설의 노후화 대책 및 내진화 대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생활·근무용 비품을 확실히 교체하고, 일용품 등의 소요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임무와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자위관 임무의 위험성과 특수성, 관서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근무수당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재해 대처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간이 침대의 정비 및 비상용 식량의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여성의 활약을 더욱 추진

일하는 방식 개혁

모든 대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활약할 수 있도록 워크 라이프 밸런스 확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의 시정 및 휴가 획득 촉진 등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활약

방위성·자위대는 여성자위관의 채용·등용에 있어 기회 균등을 더욱 철저히 하며, 또한 본인의 의욕과 능력·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인사 관리 방침으로 삼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여성자위관 최초로 이지스함 함장이 취임하는 등 여성자위관의 활약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여성자위관의 배치 제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해, 2018년 12월에 잠수함 배치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모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여성을 배치할 수 없는 부대(육상자위대의 특수무기(화학) 방호대의 일부 및 갱도중대)를 제외하고 배치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

여성 최초 이지스함 함장으로 취임한 오타니 1좌(대령 상당) (2019년 12월)

제2장 방위장비·기술에 관한 각종 시책

기술 기반의 강화

- 신영역에 관한 기술이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비·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술 예측'을 재검토하고 있다.
- 차기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는 기술적 신뢰성의 향상 및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 저감을 위해 국제 협력을 시야에 넣고 일본 주도의 개발로 최적의 개발 수법을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이미지)

장비 조달의 최적화

- 18개 품목의 프로젝트 관리 중점 대상 장비품을 선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비품 취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계약을 활용한 장비품 등의 일괄 조달을 통해 조달 비용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FMS 조달의 이행에 관한 방위성 내의 관리체제를 강화하면서 일미간에 물품 납품 및 노무 제공 상황을 상시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일미간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이행 관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산업 기반의 강인화

- 일본 산업 기반의 강인화를 위해 ①기업 간의 경쟁 환경 창출을 위한 계약 제도의 재검토, ②장비품 공급망의 리스크 관리 강화, ③수입 장비품 등의 유지 정비 등에 대한 일본 방위 산업의 적극적 참여, ④방위 장비 이전 3원칙 하에서 장비품의 적절한 해외 이전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한다.

방위 장비·기술 협력

-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 평화공헌과 국제협력 추진 및 방위생산·기술기반의 유지·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의거해 다른 나라와의 방위 장비·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필리핀에 UH-1H 부품 등의 무상 양도와 관련해 2019년 3월 인도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9월에 완료하였다.
  - 방위 장비·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국제 방위 장비품 전시회에 출전하는 동시에 필리핀 등과 민관 방위 산업 포럼을 개최하였다.

마쿠하리 맷세에서 개최된 '방위·보안 기술 국제전시회/컨퍼런스 DSEI Japan 2019' (2019년 11월)

제3장 정보 기능의 강화

● 정세의 추이에 따라 정확하게 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사태에 대한 대처에 있어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주변 등에서의 중장기적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종 사태의 징후를 조기에 알아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위성・자위대는 평소부터 각종 수단을 이용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성・자위대의 구체적인 정보 수집 수단으로는 ①일본 상공에 날아오는 군사통신전파 및 전자무기가 발신하는 전파 등의 수집・처리・분석, ②각종 화상위성(정보수집위성 포함)에서 데이터 수집・판독・분석, ③함정・항공기 등을 이용한 경계감시, ④각종 발간 정보의 수집・정리, ⑤각국 국방 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⑥방위 주재관 등을 통한 정보 수집 등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방위 주재관 이가라시 2좌 (중령 상당)

제4장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요소

자위대의 훈련

각 자위대의 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연습은 대원 각자의 직무에 필요한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 대원 개인의 훈련과 부대의 조직적 능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부대 훈련・연습으로 크게 구분된다. 대원 개인의 훈련은 직종 등 전문성 및 대원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부대의 훈련・연습은 소부대에서 대부대로 훈련을 거듭하면서 부대간의 연계 등 대규모 통합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각 자위대는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의거해 각종 사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의 통합훈련・연습 및 일미 공동훈련・연습을 계획적이고 가시적 형태로 실시하는 동시에, 이 훈련・연습의 교훈 등을 바탕으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부단히 검증하고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 훈련에 임하는 신입 대원

위생 기능의 강화

자위대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원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대의 건장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사태에 대응하는 대원의 생명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위생 기능의 충실・강화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위대의 임무가 다양화・국제화하는 가운데 재해 파견 및 국제평화 협력활동에서의 위생 지원과 의료 분야에서의 능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위생 활동의 니즈에 정확히 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방위성・자위대의 대처 활동으로, 자위대 병원과 방위의과대학교 병원에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위대 중앙병원 외에 삿포로, 요코스카, 한신, 후쿠오카, 구마모토의 각 자위대 지구 병원 및 방위의과대학교 병원에서 43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수용하였다 (5월31일 기준).

제5장 지역 사회・국민과의 관계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방위성・자위대는 불발탄 및 기뢰 처리 등 민생지원으로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9년도에는 국가적 행사인 '즉위식'에서 의례를 실시하였다. 2021년에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도 선수로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을 포함한 일본 상공・해역의 경계 감시, 대규모 테러 등이 발생한 경우의 재해 피해자 구조,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처 지원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수동으로 불발탄의 신관 제거

'즉위식'에서의 예포 (2019년 10월)

방위 시설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방위 시설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행장을 비롯한 방위 시설의 설치・운용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등의 장해 방지, 경감, 완화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주일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는 기지 주변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주일미군의 부대 운용 등에 관한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조정,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교부금 등의 교부, 사건・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주일미군과 지역 주민의 교류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갈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달성을 위한 활동이 가속화함에 따라 방위성도 정부의 일원으로서 환경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동시에 자위대 시설 및 미군 시설・구역과 주변 지역의 공생에 대해 더욱 더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이벤트・홍보 시설 등

방위성・자위대는 자위대의 현황을 국민에게 널리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에는 육상자위대의 후지종합화력연습 및 해상자위대의 체험 항해, 항공자위대 블루 임펄스의 전시 비행과 체험 탑승 등이 있다. 또한 자위대 기념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자위대 음악축제를 일본무도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본무도관의 개수공사로 인해 국립요요기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총 3만8,500명이 입장하였다.

블루 임펄스를 통솔하는 제11비행대장 후쿠다 2좌 (중령 상당)

2019년도 자위대 음악축제 모습

공문서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활동

방위성・자위대는 직원의 의식과 조직의 문화를 개혁하고 점검 태세를 충실히 하는 등, 행정 문서의 관리 및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